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입도의례를 거행한 신앙인들이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가 그것으로 증산이 설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찰과 실천이 반복되고 있는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 등은 대순진리회 마음공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음공부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대순지침』에 입각한 마음공부가 되어야 한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들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의 마음공부에는 성·경·신을 다한 자세가 요구된다. 상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성·경·신 수양법은 욕망을 제어하여 순일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마음공부를 가능하게 한다. 마음공부가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깊이 깨달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부이니 만큼 진리에 대한 진심어린 믿음을 바탕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를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마음공부, 기도, 수련, 공부(工夫), 포덕, 교화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며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 중의 하나가 ‘빨리빨리’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퀴즈프로그램이나 개그프로그램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빠름’이 한국문화의 대명사가 된 듯하다. 실제 ‘빠름’의 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시켰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이마저도 아주 빠른 평가 같지만 말이다.

아무튼 우리는 국조 이래로 더 이상 좋은 세상은 없을 듯 한 그런 착각마저 들게 하는, 가장 발전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에서는 불행함이라고는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하여 끊임없고 갈망하고 욕망한다. 그리고 그토록 욕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절망하기에 이른다. 외부 환경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내면의 마음가짐이 이와 함께 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듯하다. 외적인 성장과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간문제, 특히 마음 문제에 등한시 한 오늘날의 사회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힐링’이 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치유하기 위한 마음공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공부란 수행과정 상의 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다. 마음은 단순히 성찰하는데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과정이 마음공부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순진리회 마음공부의 교리적 근거를 『전경』을 통해서 밝힐 것이며, 성경신을 중심으로 한 대순 수양론을 통해 마음공부의 실천적 토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음공부를 유·무형의 종교적 행위로 나누어서 설명한 후, 마음공부가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II. 대순진리회 마음공부의 교리적 근거

1. 『전경』에 나타나는 마음의 개념

인간은 선과 악의 상반된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현장의 중심에서 항상 갈등하는 존재이

다.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악의 행위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악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국 자율적 의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란 인간의 의식(意識), 인식기능, 감정 작용 등 인간의 내면적 심리작용과 상태를 총칭하는 말로서,¹⁾ 인간이 인간임을 표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다양한 마음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증산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몸은 동서남북이며 마음에 의지한다.²⁾

마음은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하는 것이며,³⁾ 몸은 지식·감정·의지 등의 내면적 심리상태인 마음을 외부로 표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음작용을 통해 몸의 행위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중앙’, 몸을 ‘동서남북’이라 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이 사람의 몸을 주재한다는 것이다.⁴⁾ 그래서 “악장제거무비초 호취간래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교법1-11)라는 언설을 통해 몸의 기능인 말과 행동이 마음에 기반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몸은 물질적인 작용을 하며, 마음은 정신적인 작용을 한다.⁵⁾ ‘악하다고 하여 제거한다’는 것과 ‘좋다고 하여 취한다’는 것에서 ‘악하다’와 ‘좋다’의 감정은 마음에 기반한 것이며, ‘제거한다’와 ‘취한다’의 행위는 마음작용이 몸의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몸이 마음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증산은 인간이 지니게 되는 마음의 불안정성을 다음의 언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추기(중요기관)이고, 문호이고,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드나들며, 도로를 왕래하는 신은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⁶⁾

1) 劉文英, 『中國古代意識觀念의 生産和發展』(上海:上海 人民出版社, 1985), 25쪽.

2)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교법2-5).

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5쪽.

4) 『朱子大全』 권67, 觀心說: 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5) 김용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14쪽.

마음이라는 것은 신이 드나들 수 있는 중요기관으로써, 드나드는 문이며, 왕래하는 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초월적 존재인 신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통하여 선신(善神)과 악신(惡神) 등의 다양한 신을 접하게 된다. 증산은 인간의 선악행위가 마음을 왕래하는 선신과 악신에 있다고 본 듯하다.⁷⁾ 종교신학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추기를 여단고, 문호를 드나들며, 도로를 왕래하는 존재는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신에 해당하며, 이는 선악이 혼재하는 세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은 선신과의 선택적인 교류를 통해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인간은 마음에 작용하는 신적 교류의 감지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무한한 가치실현의 주체적 역할이 인간에게 달려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⁸⁾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나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러한 허물을 짓지 않게 경계함으로써 올바른 수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⁹⁾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능동적인 선의지는 천지보다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능동적인 선의지를 강조하고 선의지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악의 작용이 선의지의 실천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많은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적 의지’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지니는 ‘자율적 의지’는 “천지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교법3-29)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이 품게 되는 마음은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 사람의 작용이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¹⁰⁾고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작용이 자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통해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인간의 마음이 자연현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

6)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행록3-44).

7)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육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제18호(경기도: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156쪽.

8) 위의 글, 157쪽.

9) 『王陽明全集』권6, 答李明德: 心者 天地萬物之主也.

10)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행록3-44).

11)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주시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

이다. 그래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마음공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마음작용이 인간을 포함한 천지인 삼계(三界)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일들은 인간이 가지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교법-5)라고 하여 일의 성사여부가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마음공부를 위한 성·경·신의 대순 수양론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항상 어떤 것을 욕망하며, 그 욕망한 것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한다. 그리고 충족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또 다시 욕망하게 된다. ‘수양한다’는 것은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끝없이 발동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양의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성(誠)·경(敬)·신(信)을 다한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신은 대순진리회의 신조 중 삼요체에 해당되는 것으로,¹²⁾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해하여야 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점이며, 신앙인의 수도에 있어 실천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표석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¹³⁾

『대순진리회 요람』에 성은 “정성이란 늘 끊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¹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순지침』에서는 “성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이며,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

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 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공사3-29).

- 12)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웅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 종지(宗旨)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성(誠)·경(敬)·신(信)

-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 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교운2-32).

- 13)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경기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193쪽.

- 14) 대순진리회교무부, 앞의 책, 16쪽.

(自誠)이 도성(道誠)의 정석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며,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하셨으니 성의 소귀(所貴)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¹⁵⁾라고 하였다.

증산은 ‘성심’과 ‘진실’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교법2-37)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은 늘 끊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성은 오로지 자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마음공부를 하는 자는 세속의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귀라.”(교운1-7)고 하여 자신의 마음공부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진실무망(眞實無妄)된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인을 배우는 자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느니라.”(교법2-29)라는 언설을 통해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진실’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순진리회 요람』에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¹⁶⁾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순지침』에서는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으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하였으니,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응(拳拳服膺)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하며,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하는 것이다.”¹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을 설명하는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 ‘지성봉축’, ‘예의범절’ 등의 용어들을 통해서 ‘경’에는 외경함, 경건함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은 경의 근원적 의미가 신적 존재에 대한 외경의 심정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⁸⁾ 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의 심정을 신앙의 태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 앞에 선 인간은 유한자가 초월자에게 느끼는 외경의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

1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51-52쪽.

16)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6쪽.

17)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52쪽.

18) 『論語』, 雍也篇: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

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급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다.(교운1-23)

초월적 존재인 상제를 지각하게 됨으로써 천지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상제를 삼가 조심스럽게 섬겨야 하는 외경의 마음가짐을 지니게 된다. 상제를 섬김에 있어 스스로가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윤리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상제를 섬김에 있어 정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섬기는 자세가 경이 되기 때문이다.

경은 상제를 외경하는 정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공경(恭敬)의 실천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교법1-10)

외경의 정감을 바탕으로 상제를 섬기는 행위는 인륜을 성실히 실천하여 사람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섬김은 보이는 존재인 인간에 대하여 충실하게 인륜을 실천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예(禮)에는 당연히 경의 본질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듯이 인간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의 본질을 통한 외경과 공경의 자세는 단순히 상제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륜에 충실함을 통해서 상제를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성과 경의 자세는 상제를 믿는 마음 즉, 신(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신은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벽과 의지로서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¹⁹⁾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순지침』에서는,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

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임을 밝히고 있다.²⁰⁾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2-7)

신은 상제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된다. 성과 경의 자세는 상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이다. 신념은 ‘사실 또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굳게 믿는 마음이다. 이를 수행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형성된 부동(不動)의 의지이며, 강한 실천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믿음은 존재론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작용하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종교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실천을 위한 정서적인 측면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¹⁾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진다. 믿음은 어떤 형식으로든 ‘실천’이라는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을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교법2-45)

‘믿는다’는 것은 의뢰심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토지에 대한 ‘믿음’이 곡식을 남겨 두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실천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는 중요성을 띤다. 그래서 증산은 “믿기를 활을 다루 듯이 하라. 활은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 듯이 당겨야 하느니라”(교법2-35)라고 하여 점진적인 믿음의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교법2-34)한 것처럼 성급한 믿음은 활의 꺾임처럼 결국에는 목적인 바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신 수양법은 유가 수양법에서도 강조되었던 내용이다. 유가에서의 성은 “귀신은 일정하게 흠향하는 법이 없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제사를 흠향하니”²²⁾, “말을 미덥게 하고 행실을 삼가 간사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²³⁾해야 한다고 하여 진실과 성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경은 “군자는 경하여 내면의 세계를 곧게 한다.”²⁴⁾고 하여 내면

1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6-17쪽.

2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53쪽.

21) 김영주, 앞의 글, 162-163쪽.

22) 『書經』, 商書篇, 太甲 下: 鬼神無常享 享于克誠.

23) 『周易』, 乾卦文言傳: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24) 『周易』, 坤卦文言傳: 君子敬而直內.

의 수양을 통한 자기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은 “축사가 귀신을 속이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²⁵⁾이라 하여 하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신은 어느 하나의 수행만으로는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다. 상호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며 의심을 품지 않는 대순의 성경신 수양법은 상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수양법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수양 자세를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요체(要諦)인 성·경·신은 “복록도 성경신에 달려있고, 수명도 성경신에 달려있다.”²⁶⁾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모든 것이 성경신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상제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성경신 수양법은 욕망을 제어하여 순일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마음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Ⅲ.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실제

『대순지침』에 “종단 사업은 포덕·교화·수도 공부와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 사업으로 나눈다.”²⁷⁾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종단의 기본사업은 포덕·교화·수도 공부로 분류하며, 성·경·신을 다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라”²⁸⁾고 되어 있다. 포덕·교화·수도 공부는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공부의 전형으로써 종교적 행위에 해당된다.

종교적 행위는 편의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도, 참선, 주문, 염불 등과 같이 그 행위의 결과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무형적 행위와 둘째, 포교 활동, 치성의례, 도장, 사원, 성당의 건축과 탑, 불상 등의 건립과 같이 그 행위의 결과가 외부로 나타나는 유형적 행위가 있다.²⁹⁾

본 장에서는 포덕(布德)·교화(教化)·수도(修道)를 중심으로 무형적 행위로서의 마음공부와 유형적 행위로서의 마음공부로 나누어서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³⁰⁾

25) 『春秋左氏傳』, 桓公: 祝史正辭信也.

26)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교운1-30).

27)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97쪽.

28) 같은 책.

29) 대순종학교재연구회, 앞의 책, 207쪽.

30) 성찰과 실천이 반복되는 마음공부를 굳이 유·무형적 행위로 구분한 것은 기도, 수련, 공부 등이 포함되는 수도는 기본적으로 향내적(向內的) 행위에 해당하며, 포덕과 교화는 대인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향외적(向外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 무형적 행위로서의 마음공부

포덕·교화·수도 중 무형적 행위는 수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수도는 기도, 수련 그리고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순진리회요람』을 통하여 수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도(修道)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生覺)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³¹⁾

수도는 심신을 일치시키되 근본적으로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화된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수도는 일종의 종교의례적인 특징을 지닌다. 오늘날 수도의 항목에는 기도(祈禱)와 공부(工夫) 그리고 수련(修鍊) 등이 있으며, 모두 소정(所定)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으로 진행된다.³²⁾

1) 기도

기도는 신앙하는 자가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며, 신앙의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종교적 활동이다. 기도를 통해 내적 완성을 기하고 자아완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종교활동에서 기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당(牛堂, 朴漢慶:1917-1996)은 훈시(訓示)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정의내리고 있다.

기도란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所定)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을 말합니다.³³⁾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이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마음에 베고 몸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³⁴⁾에 다름 아니다.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어 광구천하·광제창생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인세에 강세(降世)하셔서’³⁵⁾ 선포한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道)가 해원상생·보은상생이기 때문이다.

31)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7-18쪽.

32) 이경원, 『대순종학원론』(서울: 문사철, 2013), 210쪽.

3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회보』제4호(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6), 2쪽.

34)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17쪽.

35) 같은 책.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기도의례는 대순진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의식으로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되고, 주일은 5일마다 있으며, 달력의 갑(甲)일과 기(己)일로 정한다. 평일기도는 매일 진(辰:오전 7시), 술(戌:오후 7시), 축(丑:오전 1시), 미(未: 오후 1시)의 시작 시각에 소정의 주문을 각자의 집이나 소정의 장소에서 봉송하는 것이다.³⁶⁾ 단, 축시 기도에는 청수를 봉전(奉奠)한다. 주일기도는 5일 마다 오는 갑(甲)·기(己)일 자(子: 오후 11시), 오(午, 오전 11시), 묘(卯: 오전 5시), 유(酉: 오후 5시)의 시작 시각에 소정의 주문을 각 회실이나 회관에서 봉송한다.³⁷⁾ 특히 오전 11시에 각 지역의 회관 등지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치른다. 이처럼 소정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기도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수도인 자신과 일치되도록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주문 봉송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종교의례이다. 종교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의례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함시킨다.³⁸⁾ 그러므로 기도를 모실 때의 마음가짐은 진실된 마음 그 자체여야 하며, ‘모심’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지극정성의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갈구하는 기복적인 종교의례는 아니다. 기복 그 자체는 어느 종교에나 공통된 인간의 소박한 종교심일 수 있다.³⁹⁾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 행해지는 기도는 기복의 의미보다는 증산이 짜놓은 천지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수도인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⁰⁾ 기도는 주문을 통해서 신명을 내 앞에 모시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외경의 심정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천지공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⁴¹⁾ 결국 기도는 일신의 복을 바라는 기복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므로, 증산은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교법1-2)라고 하여 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다.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지극한 정성’ 그 자체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릇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지녀서는 안되는 것이다.⁴²⁾

36) 주문 전체를 봉송 후 태을주(太乙呪)와 기도주(祈禱呪)를 각 이십사 독 한다.

37) 대순종학교재연구회, 앞의 책, 219쪽.

38) 류성민, 『종교와 인간』(경기도출판: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2), 145쪽.

39) 조홍윤, 『한국종교문화론』(서울: 동문선, 2002), 267쪽.

40)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교운1-63).

41) 故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3-47).

42)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 가면가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정성이 있는 곳에 상제님의 하감(下鑑)하심이 있는 것이며,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대순회보』, 2쪽).

2) 수련

수련은 ‘닦고 단련함’을 말한다. 선악이 대립하는 곳에 서 있는 인간은 선악의 상반된 가치체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수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욕망을 제어해야만 한다. 능동적인 선의지와 함께 인간 스스로의 주체적 자각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처럼 매순간 표출되는 욕망을 제어하고 수행자가 설정한 수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특별한 활동을 수련이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순진리회요람』을 통해 수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없이 기도주(祈禱呪) 혹은 태을주(太乙呪)를 송독(誦讀)한다.⁴³⁾

대순진리회의 수련의 특징은 주문을 송독한다는 데 있다. 주문은 곧 영문(靈文)이며, 주문을 외우는 수행자에게 신명을 응하게 하는 글로써 이해된다.⁴⁴⁾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은 태을주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증산은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교운1-60)는 언설을 통해 태을주를 주문 중의 으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태을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련은 일정한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다. 수련방법은 종단에서 사용하는 주문 전체를 다 외운 다음 태을주만을 반복해서 송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시간 수련을 원칙으로 하되,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의 수련을 할 경우, 1시간 수련 후 10분 휴식한 후에 계속한다.

기도가 천지공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수련은 개인적 차원에서 신력(信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유·무형의 종교행위 모두가 ‘믿는 마음’을 배양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특히 수련은 수심연성(修心鍊性)·세기연질(洗氣鍊質)의 과정인 만큼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3) 공부

대순진리회에서 진행되는 공부는 여주 본부도장의 시학공부, 시법공부 그리고 수강과 중곡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 포천 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 등을 들 수 있다.

4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8쪽.

44)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쟁자의 신을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은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2-23).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공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한다.⁴⁵⁾

종단에서 특별히 ‘공부(工夫)’라고 명명한 데에는 정형화된 의례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규정이 있으며,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단 고유의 행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 수련 등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도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정갈해야 하지만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그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인들을 대표해서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대표성을 띠는 의미에서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학, 시법, 기도 공부는 일진(日辰)에 따른 개인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산(鼎山, 趙哲濟:1895-1958)이 설한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종단의 공부가 시행되고 있다.

도주께서 이해 十一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三十六명으로 하며 시학은五日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十五日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四十五日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교운2-62)

1일 24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공부는 임원과 평신도로 구성이 되며, ‘지도 감독’,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등을 통해 공부에 참여하는 임원들의 임무가 부여되며, 공부를 알리는 종소리에 따라 1인이 1시간씩 진행되는 자기 공부를 통해 각자 맡은 바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학공부는 여주본부 도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매일 1반씩 교체된다. 1반은 3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열(列)로 하고 1열은 12인으로 한다. 3열의 전열(前列)은 시학원(侍學員) 1인, 정급(正級) 2인, 진급(進級) 3인, 회원(會員) 6인으로 하고, 제 2열은 남자 수도인 12인으로, 제 3열은 여자 수도인 12인으로 한다. 공부주문(工夫呪文)으로 전열은 칠성주(七星呪)⁴⁶⁾, 운장주(雲長呪)⁴⁷⁾를 봉송하고 제 2, 3열은 태을주, 기도주(祈禱呪), 도통주

45) 대순진리회교무부, 앞의 책, 18쪽.

46) 七星如來 大帝君 北斗九神 中天大神 上照金闕 下覆崑崙 調理綱紀 統制乾坤 大魁貪狼 文曲巨文 祿存廉貞 武曲破軍 高尙玉皇 紫微帝君 大周天際 細入微塵 何災不滅 何福不臻 元皇正氣 來合我

(道通呪)⁴⁸⁾를 봉송한다.⁴⁹⁾

대순진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부는 하나의 종교의례이면서 수도인들의 수도활동의 하나이다.⁵⁰⁾ 증산은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교운1-34)라고 하여 수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공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종단에서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공부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도인이 행하는 전 과정이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천지공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공사를 받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공부반 전원이 같이 모시는 기도시간이 평일에는 4번, 주일에는 8번 진행되는 관계로 주문 봉송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상에서 논의되어진 기도, 수련, 공부는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문 봉송시 취하는 자세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태좌법(胎座法)’을 명시하고 있다.

종도들이 태좌(胎座)법으로 둘러앉아 있을 때는 언제나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였느니라.(권지 2-23)

그러나 태좌법의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주문봉송시 행해지고 있는 수행방법을 통해 수행자세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대순진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문봉송은 평좌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평좌의 자세를 묘사해보면, 일반적인 양반자세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왼손 바닥위에 오른손 바닥을 포개어 감싸 쥐고 오른손 등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포개어 감싸 쥔 상태의 두 손을 단전부위에 살며시 갖다 댄다. 다음으로 몸에 힘을 뺀 편안한 상태에서 목과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며시 끌어당긴 자세를 취한 후 양 눈을 감고 주문을 봉송하게 된다. 이러한 평좌의 자세를 대순진리회에서는 법좌라 칭하고 있는 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주문봉송은 법좌의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다.⁵¹⁾

身 天罡所指 晝夜相輪 俗居小人 好道求靈 願見存儀 永保長生 三台 許精 六旬 曲生 生我 養我 護我 身形 魁 魁좌 관행 필보靑 尊帝 噫噫 如律令.

47) 天下英雄 關雲長 依幕處 謹請天地 八位諸將 六丁六甲 六丙六乙 所率諸將 一般兵營 邪鬼 噯噯 噯噯 如律令 娑婆啊.

48) 天上元龍 坎武 太乙星 斗牛君 神呀神呀 三呀三呀 以 道通道德으로 上通天文하고 下達地理하고 中察人事케 하옵소서.

49)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87-188쪽

50) 이경원, 앞의 책, 228쪽.

심안심태(心安心泰)라 하였다. 심안심태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⁵²⁾ 이 말은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바른 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온다’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좌를 통한 주문봉송은 올바른 몸가짐과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신명들을 모시는 것이 되며,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대순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도, 수련, 공부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공부에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주일 기도, 수련, 공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바, 혼자서 소정의 장소에서 행하던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이유로 주변과의 조화와 배려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혼자 수행에 임할 때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할 경우, 전체의 조화가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는 공부는 자칫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공부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적 행위로서의 마음공부

1) 포덕

포덕은 대순진리를 알리는 대사회적 종교활동으로 종교의 유형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타종교에서는 포교(布教) 및 전도(傳道)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⁵³⁾ 『대순지침』에서는 포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체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이다.⁵⁴⁾

포덕은 ‘덕을 편다’는 의미로 여기의 ‘덕’은 ‘증산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의 덕’을 의미한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의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포덕인 것으로, 이를 통해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이심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⁵⁵⁾

증산은 『전경』을 통해 포덕의 당위성을 설하고 있다.

51) 김영주,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실현과 수행실천에 관한 연구』, 『도교학연구』제21호(서울: 한국도교학회, 2007), 110-111쪽.

52)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9쪽.

53) 대순종학교재연구회, 앞의 책, 208쪽.

54)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1쪽.

55) 같은 책.

상제께서 어느날 류 찬명(柳贊明)과 김 자현(金自賢)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 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고 이르고 또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옥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 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3-31)

포덕은 ‘치천하(治天下)’의 공부로써 증산의 ‘평천하(平天下)’가 전제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치천하’는 증산의 ‘대순진리’를 습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경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는 것을 통해 대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하라”(교운1-64)는 언설을 통해 깨달은 대순진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로의 확대를 통하여 증산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후천 선경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포덕’인 것이다.⁵⁶⁾

포덕은 대순진리의 실천적 표현이자 대순진리를 전하는 대인접촉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포덕에 임하는 자는 ‘비인정(非人情)’이면 불가근(不可近)(교법3-47)’인 바,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을 베풀면서 광구천하(匡救天下)의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포덕이 ‘덕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면 널리 알리는 방법은 언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언어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의 하나이다. 결국 포덕은 대순진리를 언어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전달 될 수 밖에 없다. 대순진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국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포덕의 주체가 행한 발언이 실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종교언어가 사실기술이나 사실설명의 언어가 아님⁵⁷⁾에도 불구하고,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한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전에 행해진 포덕의 왜곡된 전형들 때문에 생긴 선입견들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격한 반응으로 되돌아온다. 실제 포덕행위를 하면서 겪게되는 이런 일들은 수도인들에게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고통이 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⁵⁸⁾ 이런 상태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포덕을 가장 훌륭한 마음공부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외적 갈등과 내적 회의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대순진리를 알리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⁵⁹⁾

포덕은 끊이지 않는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사람사이에서 오는 갈등만큼 마음을 어렵

56) 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3-47).

57) 정진홍, 『경험과 기억』(서울: 당대, 2003), 247쪽.

58) Lionel Obadia, *La Religion*, 양영란, 『종교』(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7), 101쪽.

59)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간난을 잘 삭혀 넘겨야 하리라.(교법1-3).

게 하는 것도 없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지극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2-6)라고 한 것이다.

2) 교화

교화는 포덕과 더불어 대순진리를 확산시키는 대사회적 활동이다.

『대순지침』에서는 교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 교리를 상대방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⁶⁰⁾

교화는 가르쳐서 감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교화는 하나의 신념체계를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종교활동이다. 교화는 입도한 도인으로 하여금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자각케 하는 것으로 신앙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므로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⁶¹⁾ 그러기 위해서는 교화자가 대순진리를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매사에 모범적이고 술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교운1-36)고 하였으니 부당한 언사나 처사없이 대순진리를 정각하여 행동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화자는 자신이 하는 교화를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화의 신뢰성 여부는 교화자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자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순진리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하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교화를 듣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대순진리를 잘 알릴 수 있을까? 등 살핍의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덕과 교화는 그 과정에서 자화(自化)와 타화(他化)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자화는 포덕·교화의 주체가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타화는 진리를 전해 듣는 이로 하여금 대순진리를 체득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덕과 교화의 담당자는 진리를 전함에 있어 거짓없이 진실된 것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말재주 보다는 책임 있는

6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4쪽.

61) 위의 책, 45쪽.

자세로 행동과 처신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상대를 감화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써의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를 살펴 보았다. 마음공부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단순히 성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증산이 설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찰과 실천이 반복되고 있는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 등은 대순진리회 마음공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마음공부에는 성·경·신을 다한 자세가 요구된다. 성·경·신은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인 삼요체로서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IV. 나가며 : 남겨진 과제들

대순진리회는 증산 상제를 종교적 연원으로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증산의 말씀을 기록한 『전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전경을 바탕으로 대순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당의 말씀을 정리한 『대순지침』을 통해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마음을 『전경』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대순지침』에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하셨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증산이 설한 마음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마음공부는 가입의례인 입도치성을 행한 신앙인들이 수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도통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대순지침』에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⁶²⁾고 하였다.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 바, 수도, 포덕, 교화의 과정을 통해 대순진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에 대한 성찰과 대순진리에 입각한 실천의 반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들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순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대순진리는 『전경』을 근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경』은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초월적 존재인 상제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있다. 신성성이 담보되어 있

62) 대순진리회교무부, 앞의 책, 38쪽.

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일 전경을 통하여 상제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 속으로 새기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상제님의 말씀은 내 생활의 지침이 되고, 내 존재의 중심이 되며, 내 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제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은 나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선한 본성을 일깨워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중국에는 진리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주는 것이다.⁶³⁾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경』읽기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무튼 마음공부는 『전경』을 근간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마음공부는 무형적 행위와 유형적 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무형적 행위로서의 마음공부였던 기도, 수련, 공부는 대자적인 마음공부 방법에 해당된다. 기도, 수련, 공부 후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며, 마음에서 우리나라서 하는 공부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하니깐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인의 마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교화가 강조된다. 기도, 수련, 공부의 중요성을 『전경』을 근간으로 하여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상은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아 간에 소통을 이루려는 ‘매개’이다.⁶⁴⁾ 포덕과 교화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 상대와 교감하는 종교 활동이므로 종교언어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종교언어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언어이다.⁶⁵⁾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비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진실한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 말을 꾸며서 진리가 와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포덕·교화는 『전경』을 근본으로 하여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진리를 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순진리에 대한 교화내용의 통일이 요청되는 것이다. 통일되지 않은 교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자아내며,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화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자기의 교화가 최고이며, 진리에 합치되는 교화라고 은연중에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화가 통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은 누구나 교화자가 될 수 있다. 교화자는 『전경』에 입각하여 대순진리를 교화하는 자세가 요구되어 지는 것이며, 교화자 스스로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⁶⁶⁾ 이는 교화자 스스로가 항상 마음공부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화내용, 교화에 사용된 언어 그리고 태도 등 일상 자신을 반성하고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화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모습에 서로의 기운이 교감하

63)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나니라.(교법2-53).

64) 정진홍, 앞의 책, 241쪽.

65) 위의 책, 250쪽.

66)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수반들에게만 강요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도리어 배신당하는 처사가 된다.(『대순지침』, 47쪽).

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화와 함께 포덕은 대순진리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포덕은 대순진리의 실천적 표현으로 대순진리를 전하는 대인접촉이다. 교화가 입도한 수도인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작업이라면 포덕은 비신앙인들에게 대순진리를 알리는 작업이다. 포덕은 특성상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앞서 이루어졌던 왜곡된 포덕방식으로 인해 내외적인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덕을 가장 훌륭한 마음공부의 전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비어 없이 『전경』에 입각한 진리 전달이 되어야 한다. 말을 꾸며서 만들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 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진리의 전달은 뒤로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조직 체계에 의해 직급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포덕이 마음을 닦아 진실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공부의 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대한 욕심이 우선해서 포덕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왜 대순진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교법2-34)라는 증산의 언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신앙하는 입장에서 대순진리를 빨리 알려야겠다는 의미에서 서둘러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믿기를 활을 다루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교법2-35)라는 증산의 언설은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한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현재 많은 단체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일반 대중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다. 대순진리회가 현재를 살아가는 종단이라면 일반 대중과의 관계맺음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의 종교는 신자의 율타리를 중시하는 종교에서 보다 열린 종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간 존재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구하는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⁷⁾ 이처럼 일반 대중과의 관계맺음과 관련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대순진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순진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이 포덕이고 대중을 위한 마음공부가 또 다른 포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순진리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다 활발한 대민활동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질적인 경계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⁶⁸⁾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67) 上田紀行, 宗教クライシス, 양역관, 『종교의 위기』(서울: 푸른숲, 1999), 192쪽.

68) 박원재, 「장자, 죽음은 삶과 평등하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서울: 산해, 2005), 293-294쪽.

있는 대민활동은 지역 사회와 대순진리회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긍정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포덕방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의 추구에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⁶⁹⁾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마음공부는 일신만을 위한 마음공부가 아님을 정각해야 한다.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공부이며 모두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경』과 『대순지침』에 입각한 마음공부가 요구되는 것이며, 개인의 공부에 집중하여 덕화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인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마음공부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합하는 마음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공부가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깊이 깨달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부이니 만큼 진리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을 바탕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를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69) 윤원근, 『동감의 사회학』(서울: 문예출판사, 2002), 421쪽.

참고문헌

『論語』

『書經』

『王陽明全集』

『典經』

『呪文』, 경기포천: 대순진리회.

『周易』

『朱子大全』

『春秋左氏傳』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제18호, 경기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_____.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실현과 수행실천에 관한 연구」, 『도교학연구』 제21호, 서울: 한국도교학회, 2007.

김용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회보』 제4호,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6.

_____.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_____.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류성민. 『종교와 인간』, 경기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2.

윤원근. 『동감의 사회학』, 서울: 문예출판사, 2002.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박원재. 「장자, 죽음은 삶과 평등하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005.

정진홍. 『경험과 기억』, 서울: 당대, 2003.

조홍윤. 『한국종교문화론』, 서울: 동문선, 2002.

Lionel Obadia, *La Religion*, 양영란. 『종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7.

上田紀行, 宗教クライシス, 양익관. 『종교의 위기』, 서울: 푸른숲, 1999.

劉文英, 『中國古代意識觀念的 生産和發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

원고접수일: 2013년 11월 14일 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연구자소개: 김영주

- ① 전공: 한국신종교, 한국철학 / 소속 :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2010)」, 「다산 공부론에 있어서 주체성 확보 문제(2011)」,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2012)」,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2013)」, 등.
 - ④ E-mail: eureka0304@daejin.ac.kr
-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and Assignment of the Program for the Pursuit of Mind in Daesoon-Jinrihoi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A pursuit of mind is not a concept to point out something special in practicing asceticism. The mind is not only aimed to approach self-examination but to be a concept having a practice. Therefore, the whole process for the achievement required by the religion is a pursuit of mind.

This paper is for discussing the reality and assignment of the program for the pursuit of mind in Daesoon Jinri Hoi.

It doesn't have any special program for the pursuit of mind for the public. All the things done as a purpose of the asceticism by the believers who have got a entrance ceremony for the religion are included into the program. In other words, praying, practicing religious principle, missionary work and educational work are the pursuit of mind the believers have to do. The first thing they have to do for a pursuit of mind is to understand the Daesoon Jinri Hoi correctly.

It is for the religious achievement. So, to complete the religious achievement of Daesoon Jinri Hoi the pursuit of mind should be guided by the religious principle like Jeonkyung and Daesoon Jichim. The pursuit of mind should be based on the attitude to respect the human beings and God called Sangje because its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e religious principle called Haewonsangsaeng and inform it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Key words: a pursuit of mind, praying, practicing religious principle, self-discipline, missionary work, educational work.